고용노동부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.(월) 배포 즉시

저소득 취약 청년은 두텁게 지원하고, 형식적 구직활동은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1.2.(월) SBS Biz, 「고소득 부모 자녀도 65만원 따박따박…'청년 첫 구직수당' 형평성 논란」

ㅇ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독립해 부모와 따로 살면서 별도 가구인 청년의 경우 부모 소득 수준이 전혀 감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

ㅇ 예산처는 "정부가 취업 경험 요건을 없애면서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하고 수당을 받는 부작용도 우려된다"라고도 지적했습니다.

2. 설명 내용

□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에 대응, '첫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'들을 지원하기 위해 **취업 경험 없는 저소득 청년을 지원**하는 「**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**」 신설 추진 중

□ 동 제도는 **개인별**로 수립한 **취업활동계획을 이행**해야만 수당을 지급하므로, **가구가 분리된 모든 청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**

ㅇ 또한, 가구 분리 청년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, **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단절된 저소득 청년 등이 배제**되는 등 **사각지대 발생 우려***

* **긴급복지지원,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복지제도도 가구 분리 청년 지원 중**

□ 한편, **수당만을 목적**으로 한 **참여가 의심**되는 경우에는 **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의 수립과 이행**을 **엄정히 점검**하도록 하고,

○ 단순·반복적 이력서 제출 등 **형식적 구직활동이 적발되는 경우**에는 **관용 없는 수당 감액·부지급**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

○ 아울러, 향후 **AI를 활용**해 **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 의심 사례를 탐지**하는 등,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예정임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책임자	과 장	김현아 (044-202-7190)
		담당자	사무관	최원석 (044-202-7193)